

GLOBAL
ISSUE
BRIEF

2026년 5월호
vol.34

B

€

£

\$

¥

¥

¥

21.58

03.9

[경제·산업·기술]



부문별 동향과 전망

이란전쟁의 경제적 함의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정 영 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sjeong@kiep.go.kr

이란전쟁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에 의한 글로벌 장기금리 동반 급등, 취약 신흥국 자금이탈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적 금융충격이 현실화되었다. 한국은 높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과도한 원화 약세와 글로벌 흐름 수준의 금리 상승 압력이 있으나, 주가는 급락 이후 반도체·방산 업황 개선에 힘입어 차별적 반등세를 보였으며,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및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위기관리 강화, 외환시장 안정화, 그리고 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정교한 거시정책 조합을 통해 지정학적 공급충격의 금융·실물부문 영향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란전쟁의 경제적 함의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ysjeong@kiep.go.kr

1. 미·이스라엘-이란전쟁의 경제적 함의

이란전쟁은 세계경제의
신경망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분절화를 초래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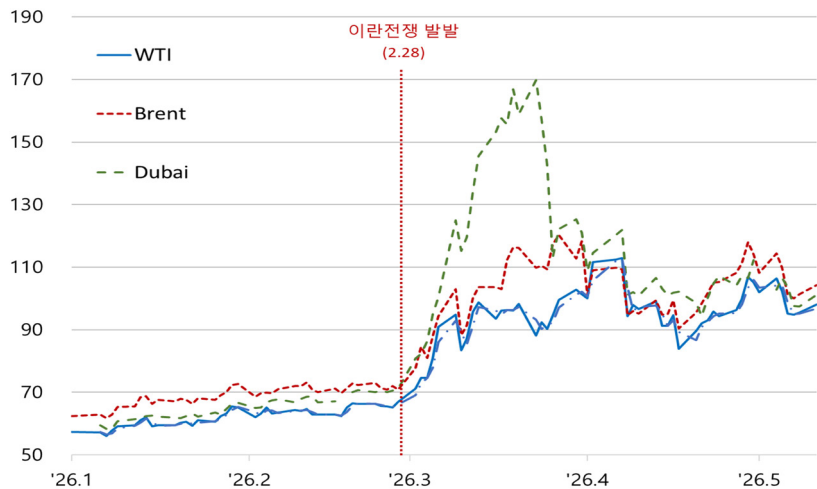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이스라엘-이란전쟁(이하 이란전쟁)은 세계경제의 신경망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폐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초래한 사건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25%,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과거의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특정 국가의 생산 차질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전쟁은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헬륨, 암모니아,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의 이동 경로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특히 카타르의 라스 라판(Ras Laffan) 산업 단지에 대한 공격으로 전 세계 헬륨 생산의 33%와 LNG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단된 것은 첨단 산업 공급망에 즉각적인 병목 현상을 초래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한 극심한 공급 측 충격(Supply-side Shock)은 곧바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중동지역이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올해 연초 배럴당 60달러 전후에서 등락하던 국제 유가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때 두바이유 169.8달러, 브렌트유는 120.3달러, WTI는 113.0달러까지 급등하였다. 이는 세 유종 평균 기준으로 연초 대비 약 2배, 두바이유 기준으로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유에서 추출된 다양한 상품의 가격 급등과 물류 및 생산비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림 1 이란전쟁 전후 국제 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주: 1) WTI(선물): 미국 NYMEX 선물시장에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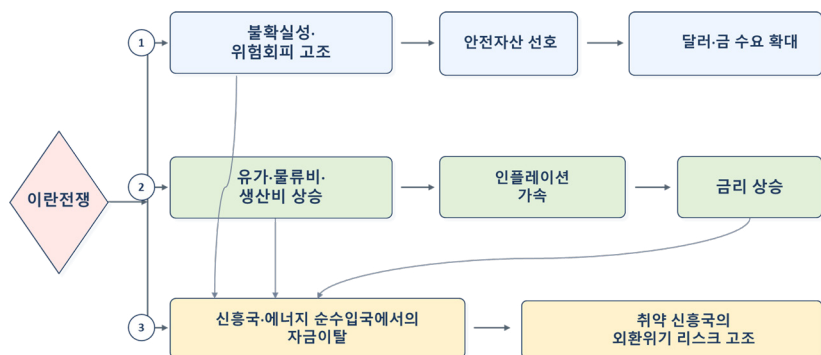
2) Brent(선물): 영국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 3) Dubai(현물):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현물가격 추정값.

자료: 블룸버그; Opinet

2. 이란전쟁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공급 충격)는
먼저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 즉
안전자산(달러, 금)
 선호 경로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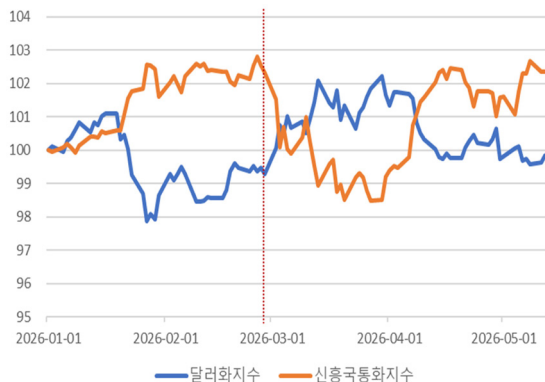
그림 2 이란전쟁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경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공급 충격)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는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 즉 안전자산 선호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분하는 위험회피(risk-off) 패턴을 보인다(위험회피 → 안전자산 선호 → 달러·금 수요 확대). 이란전쟁은 과거 중동지역 분쟁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더하여 걸프만 인접국들의 에너지 생산시설 파괴까지 수반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화 지수는

100포인트를 돌파하며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달러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유국 지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주요 통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원화, 엔화 역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안전통화로 인식되었던 일본 엔화는 에너지 수입 비용 급증에 따른 실물 및 금융충격 우려로 인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위안화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의 적극적 환율 방어 및 시장 안정화 노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위안화를 이용한 에너지 결제 수요 확대에 의해 타 신흥국 통화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금 가격 또한 전쟁 초기에는 변동성을 보였으나, 점차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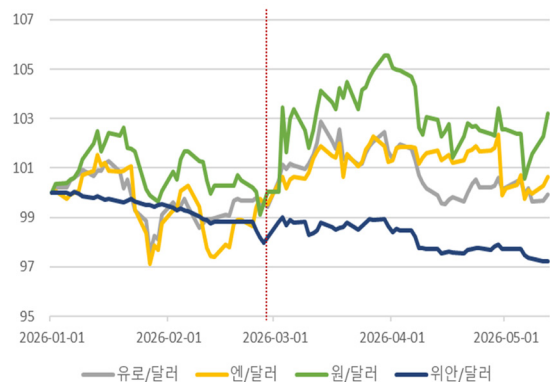
그림 3 달러화 지수¹⁾와 신흥국 통화지수²⁾



주: 1) 달러화 지수는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
2) 10개 신흥국[브라질, 칠레, 중국, 헝가리, 인도,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튀르키예, 남아공]의 통화가치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
3) 두 지수를 2026년 1월 1일 = 100으로 환산, 지수 상승시 통화가치 상승, 하락 시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

자료: Bloomberg

그림 4 달러 대비 유로, 엔, 원, 위안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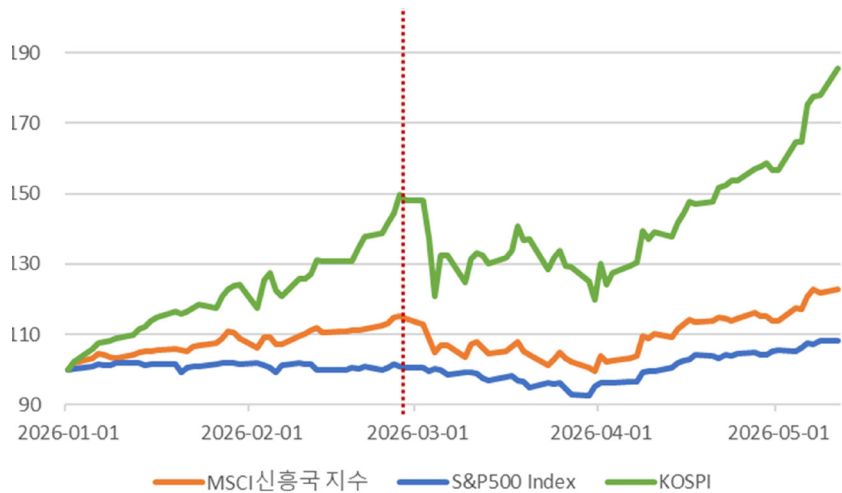
주: 1) 모든 환율을 2026년 1월 1일 = 100으로 환산
2) 상승시 해당 환율의 상승(해당 통화가치 약세), 하락시 해당 환율의 하락(해당 통화가치 강세)을 의미

자료: Bloomberg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전개됨에 따라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리스크 프리미엄)을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산의 할인율(Discount Rate)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주식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나누는 값인데, 분모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 분자인 현금흐름이 그대로여도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한편 이란전쟁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마저 악화시킨다. 실제로 글로벌 주가는 이란전쟁 직후 급락하다가 휴전이 논의되고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안정되었다.

그림 5 신흥국 주가지수, 미국 S&P 지수, 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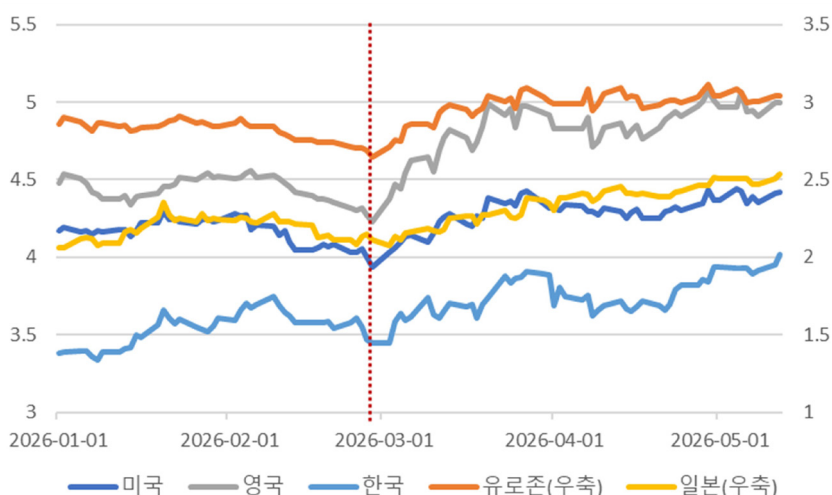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두 번째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공급충격 → 유가
상승, 물류 및 생산비 상승
→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
금리 상승 압력 경로이다.

다음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공급충격 → 유가 상승, 물류 및 생산비 상승 →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 금리 상승 압력이다. 이란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 수출시설, 걸프 지역 LNG·정유 인프라 파괴로 원유·석유제품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유가와 운임이 상승하고, 이는 에너지·운송·화학·비료·식품 가격으로 파급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금리는 대폭 상승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자 당초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 예상이 금리동결로 바뀌고, 심지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험회피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미국채 가격 상승(금리 하락)과는 반대로, 미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미국은 중동전쟁 직전 3.94%에서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44%까지 급등하였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월가에서 '파멸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임계치인 5%를 넘어섰다. 30년물 금리의 5% 돌파는 월가에서 '파멸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될 만큼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도 전쟁 이전 4.23%에서 4월 말 5.07%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유로존·일본도 각각 전쟁 이전 2.64%, 2.11%에서 최근 3.11%, 2.54%까지 급등하였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이후 약 30년만의 최고치이다. 한국도 글로벌 금리와 동조화를 보이며 전쟁 이전 3.45%에서

5월 12일 4.02%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약화 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채금리 상승 → 이자 부담 확대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한국 국채(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금흐름 경로를 통한 취약 에너지 수입국의 위기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금흐름 경로를 통한 취약 에너지 수입국의 위기 경로이다. 이란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금리 급등, 달러 강세는 신흥국 경제의 취약한 연결 고리를 타격한다.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글로벌 펀드가 신흥국 주식·채권에서 이탈하고, 외화부채가 많은 국가나 에너지 순수입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 특히 유가 상승은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외화 수요를 늘려 환율 상승, 즉 자국통화 약세를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고, 재정·경상수지가 모두 적자이며 단기외채가 많은 취약 신흥국들은 외환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커진다.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처럼 외환 통제가 엄격한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사용 시 국제수지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고, 이집트, 요르단은 외채 상황 부담이 크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외환위기 고위험 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같은 원유 수출국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3. 이란전쟁의 한국금융시장 영향

한국금융시장은 글로벌 동조화 양상이 나타났으나 환율, 주가, 금리 간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원/달러 환율의 경우 글로벌 강달러흐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다(원화 약세).

이란전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즉 한국의 환율, 주가, 금리는 글로벌 동조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글로벌 동조화 강도는 환율, 주가, 금리 간에 차이를 보였다. 먼저,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강달러흐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3월 말 원/달러 환율이 1,519원으로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원화 약세)하였고, 원화 가치는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큰 폭인 3.1%의 절하를 기록하였다(2.27일 대비 5.12일 기준). 반면 달러화지수와 위안화(달러화 대비)는 각각 0.6%, 1.0% 상승, 신흥국 통화지수는 0.0%로 보합세를 보였고, 달러화 대비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엔화는 각각 -0.5%, -1.1%, -1.3%에 그쳤다. 이러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한국경제의 고유한 위험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은 원유 도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자동차·화학 등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깊이 편입되어 있어 해상물류 병목현상에 민감하다. 여기에서 이익실현을 위한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지속, 4월에 집중된 외국인의 주식배당 역송금 수요도 원화의 가파른 약세에 일조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 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원화 약세)로 전월 대비 16.1%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2.2%, 4월 2.6%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 충격이 일회성 원재료 급등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운송비와 생활물가를 통해 가계가 체감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넘어 올해 1~2회 금리인상까지 예상함에 따라 시장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 주가는 이란전쟁 직후 폭락하였다가 반도체·방산 업황 개선에 힘입어 차별적 반등세를 기록하였다.

셋째로 한국 주가는 이란전쟁 직후인 3월 위험자산 회피 현상, 한국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및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에 따른 한국경제 타격 우려 등으로 급락하였다. 다만 그 이후에는 이란전쟁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공급망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내 IT 기업의 이익전망이 대폭 늘어나고, 지정학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K-방산 수주 기대를 높여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끝으로 가파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가능성은
시장에서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가파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가능성은 시장에서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26년 4월 말 기준 4,278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9,042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채권국이다. 과거에는 외화 부채가 취약점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민간과 정부가 보유한 해외자산에서 대규모 배당·이자 소득이 유입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각각 24.4bp와 20.0bp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CDS 프리미엄의 경우 일본(27.0bp), 프랑스(28.0bp)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외평채 가산금리(10년물 기준)가 355bp(1998년 4월 외평채 첫 발행 당시)~1,000bp(1998년 8월 러시아의 지불유예 선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 400bp(2008년 12월)를 기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CDS 프리미엄의 고점 수준은 675bp(2008년 10월)에 달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외환부문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향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정학 및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이란전쟁의 발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이란 간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분석기관인 CRS·브루킹스·CSIS는 전반적으로 향후 이란전쟁이 일정 기간 ‘불완전한 휴전’과 ‘제한적 핵협상’의 조합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 간에 의미있는 합의 진전이 있더라도 과거 중동전쟁에 비해 공급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확보 움직임이 재개될 수 있는데다가 미·이란 전쟁 개시 이후 80곳이 넘는 원유 및 천연가스 시설이 타격을 받아 중동 지역 내 피해 생산시설이 회복되는 데에도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란전쟁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향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발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이란전쟁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향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발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란전쟁은 단순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적 분쟁을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다극화·지역화·안보화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 국이지만, 과거에 비해 중동 안보, 에너지 안정, 핵비확산, 동맹 결속, 글로벌 시장 안정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다.

우선적으로 위기 대응
관리에 집중하되,
국제질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우선적으로 공급망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 대응 관리(공급망 관리 체계 고도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에 집중하는 한편, 이란전쟁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복에 대비해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반복에 대비해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반복되는 환율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및 통화 협력 강화, 외화 유입 촉진, 외화 유출 완화 조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급충격 완화,
기대인플레이션 및 환율
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급충격 완화, 기대인플레이션 및 환율 안정,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교한 거시정책 조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해 자본 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 대외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어 환율안정 및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장 금리 급등에 따른 과다채무 취약 기업 및 가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6-13. 2026년 5월 12일.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ill the Iran War Be the Breaking Point for Vulnerable Countries? March 20, 2026

CSIS,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War with Iran.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26: Global Financial Markets Confront the War in the Middle East and Amplification Risks, April 14, 2026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pril 2026.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6: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Chapter 1. April 14, 2026

Israel and Iran at War: What Comes Next?, CSIS Middle East Program, March 30, 2026

Koichi Nakagawa, The US-Israel Attack on Iran and the Realignment of the Middle East Order, JIA, March 18, 2026

Mona Yacoubian, The Regional Reverberations of the U.S. and Israeli Strikes on Iran, CSIS, March 1, 2026

Oil Price, IEA Chief says Oil, Gas Recovery Could Take Two Years After War Damage, April 16, 2026

Suzanne Maloney and Mara Karlin, Will the Iran Ceasefire Hold?, Brookings Podcast, April 22, 2026

U.S. Conflict with Ir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R48887), March 26, 2026